

국가청렴위를 독립 · 강화시켜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현대 중국이 망할 이유를 두 가지만 들라면 '부패'와 '샤오황디'(小皇帝)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은 정말 썩었다. 온통 썩었다. 우선 중국 자본주의의 주역인 관료가 썩었다. 그러니 기업이 썩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야 하는 중국인이나 해외기업도 썩을 수밖에 없다.

부패가 불륜을 낳고 불륜이 퇴폐를 낳고 그것이 부조리를 낳는다. 어찌 보면 역동적인 것 같지만 중국의 부패는 중국의 골수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게다가 이제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각 가정의 '한 자녀'인 싸가지 없는 샤오황디의 문제가 심각하다.

샤오황디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났다고 해서 '바링허우'(八零後) 세대라고도 한다. 이들은 총 5억명으로 추산된다. 중국대륙은 이들로 인해 내수시장이 형성됐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황제처럼 떠받들다보니 돈을 아낌없이 펄펄 써대는 게 습관이다. 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전통적 가치는 무참히 무너지고 그나마 도덕성도 찾기 힘들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부패가 창궐하고 젊은 세대는 무책임하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젊은 그들을 질책할 수도 없다. 과거부터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쫓은 식은 죽 먹기로 했기 때문이다. 죄도 아니다(?). 특히 한국의 지도층이 그 본보기다. 장관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땅투기를 낭만시하며 또 위장전입쫓은 말로 때운다. 부패도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NGO 중심으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창립총회와 청렴선진한국 쫓기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그 후 진척이 안된다. 그만큼 그 모임이 허세이기도 하지만 견제도 심한 모양이다.

진보정권은 무능해서 망하고 보수정권은 부패해서 망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말은 다 허구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당국자들은 그동안 공직부문의 부패가 그래도 줄어든 것처럼 얘기해왔지만 국제적 시선은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국제적으로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라는 식의 부정적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들은 한국의 법집행이 '부패 친화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IM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가경

쟁력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부패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MB정부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없어졌다. 권익위로 흡수 개편됐다. 다시 말하면 '반부패 독립기구'가 사라진 셈이다. '친비즈니스' 정책이 두드러지면서 '반부패는 일종의 규제'로 인식되는 문화가 생겼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처럼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히 심각하다. 오히려 부패는 '교묘히 진화'했다.

최근 경향은 '합법 부패화'되고 있다. 가령 리베이트는 관행상 가능해지고 부패가 지능화되고 있다. 검찰 개혁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지만 항상 무너지고 있다. 정권이 검찰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받는 부패'가 터지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모든 부패는 '주는 부패'에서 온다. 주는 기업 쪽을 처벌해야 하는데 '양벌규정'과 관련된 법이 100여개가 사라졌다. 이러고도 동반성장이 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동반성장보다 부패척결이 먼저다. 국가청렴위를 강화 · 독립시켜라!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4일 (금)	8월 7일 (월)	8월 8일 (화)	8월 9일 (수)	8월 10일 (목)
미	달	러	(USD)	1298.80	1303.90	1304.10	1312.60	1318.30
일	본	엔	(JPY)	911.02	919.05	915.58	916.08	917.49
영	국	파	운 드	(GBP)	1651.10	1662.47	1666.77	1672.71
캐	나	다	달 러	(CAD)	972.74	974.66	975.25	977.84
홍	콩	달	러	(HKD)	166.35	166.93	167.04	167.98
중	국	원	(CNH)	180.47	181.53	181.16	181.90	182.64
유	로	화	(EUR)	1422.45	1434.68	1434.97	1437.95	1446.97
호	주	달	러	(AUD)	851.49	856.92	857.25	858.31
싱	가	폴	달 러	(SGD)	968.57	973.24	972.52	973.8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5.04	286.26	286.05	286.44
							286.44	288.41